

건강 상담실

◇ 이번호 해답자 <가나다순>

윤준모 백병원 피부과장
 이상욱 가톨릭의대 안과교수
 주정빈 서울병원 정형외과

나이 겨우 38세인데 갑자기 시력 흐려져

문 38세의 회사원입니다. 밥도 잘 먹고 건강한 편이며, 아직까지 이렇다할 병을 앓아 본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. 그러나 직장일이 좀 과로한 편이며 또, 저는 약 20명가량 되는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서무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일도 비교적 많습니다.

그런데 약 달포전부터 갑자기 시력이 이상해졌습니다.

신문을 불러고 하면 찻점이 흐려지고 글씨가 이층으로 겹쳐보이기도 하며, 또는 작게도 보입니다. 그러나 어떨때는 별 이상이 없기도 합니다.

저는 아직까지 눈병을 앓아 본 일은 없었으며, 시력도 좋은편이어서, 안

경이란 것을 써 본 일도 없습니다.

혹시 나이가 드니까 원시안(遠視眼)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도 생각해 보았으나 다만 나이에 비해 그렇게 빨리 원시가 될리도 없고 또 돋보기를 대고 글씨를 보면 더 어지러우니 무슨 병이 생긴듯 느껴집니다.

무슨 이유일까요?

<서울 마포구 황전동 김동욱>

노안은 아니고 난시인듯, 백내장 초기현상 우려도

답 귀하께서는 나이가 들어 원시안(遠視眼)이 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나 노안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

물체가 겹쳐 두개로 보인다고 하시니 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난시라고 판단이 내

려진다면 우선 교정을 하시어 바로 잡으셔야 되겠고, 난시가 아니라도 눈 속에 백내장 초기현상 또는 중심성 광막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

<이상욱 박사>

음부 옆에 습진이 좁쌀처럼 번져가

문 저는 17세의 소녀로서 여고 1년생입니다. 저는 중학교 2학년때 부터 음부 바로 옆에 좁쌀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니다.

그러나 저는 습진으로 알고 습진약을 발랐으나 낫지는 않고 옆으로 자꾸만 번져만 가는군요.

때로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합니다. 저의 병명은 무엇이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.

상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전북 무주읍 안성면 장거리 이미자>

곰팡이의 일종 「라이나」가 유호

답 귀하의 병은 습진종류가 아니고

곰팡이의 일종으로서 완
선이라는 도강부스럼인
것 같습니다.

이 완선이라는 병명
이 현미경상으로 확진
이 되면, 곰팡이 균을
죽이는 치료법을 택하
셔야 되겠습니다.

시중의 약국에서 「타
이나연고」 「티나덤」을
구입하시어 환부에 바
르시면 곧 나으실 것입
니다.

<윤 준 모 박사>

무릎을 다쳤는데 운동하면 아픔이

(문) 저는 27세된 청년
입니다. 2년전 군
부부중 운동경기를 하다가
무릎과 무릎이 심하게 부
딴데였는데요. 그 당시에는
약간 아픔은 있었으나 괜
찮겠지하고 오늘에 까지
이르렀습니다.

그런데 얼마전 심한 운
동을 하고나니 무릎이 부
어오르고 부딴던 부위를
누르면 몹시 아프곤 합니
다.

평소에는 통증이 전혀
없으나 심한 운동후, 때로
는 갑자기 다리를 쓰면(특
히 축구) 몹시 아픕니다.

심할때에는 걷기조차 불

편하고 아픔이 없을 평소
에도 상처부위를 누르면
아픔이 있습니다.

혹시 염증이라도 생기지
않았나 걱정도 됩니다.

저에게 좋은 치료법은
없을까요?

주위의 어떤 사람의 예
기로는 수술을 하여 근육
을 제거하여야만 한다고
하는데 수술을 받아야 좋
을지요. 자세한 말씀 바람
니다.

<충남 금산군 제원면

김 철 환>

힘줄이 찢어진듯 오래되면 힘들어

(답) 환부를 눈으로
보고, 기타 검
사를 한 이후라야 확실
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
있겠습니다.

서면 상으로 나타난
내용안에서 말씀드리자
면, 귀하께서는 혹시 관
절을 붙들어 매고있는
힘줄이 넘어지는 순
간 잘못 비틀리어 찢어

질문의 환영

독자 여러분의 많은
이용을 바랍니다. 기
생충질환 예방 및 치
료에 관한 문의 이외
에도 일반질환에 대한
문의도 환영합니다.

의료계 권위자와 상
담하여 지도해 드리겠
습니다.

지거나 늘어나거나 하
여 반월상연골이 찢어
지지 않았나 생각됩니
다.

그렇다면 관절이 아
프고 뚝뚝소리도 나곤
합니다. 다쳤을 바로
당시에 치료를 하면 곧
나을 수 있으나 오랜
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
면 낫기가 힘듭니다.

귀하의 경우 연골을
다쳤다는 검사결과가
나왔으면 찢어진 곳을
보완하는 수술을 받아
야 하겠습니다.

<주 정 빈 박사>

기생충 박멸 표어

간디스토마는 난치병이다

민물 고기는 날로 먹지 말자

—한국기생충박멸협회—